

[현장 & 현장 사람들 2: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

이주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 만들기

이희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re in Daegu

2013년 6월, 학기 말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강혜숙 대표와의 인터뷰 약속이 연기되었다. 무척 죄송한 마음이었다. 두 번째 약속한 날 오후, 연구소원 2명과 함께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를 방문했다.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있는 건물의 2층에는 (주)두밥(DOOBOB)이라는 다문화지원 복합공간이 있다. 이곳은 다문화 체험수업에서부터 다문화 식당 및 여행 사업까지 컨설팅하는 창의적 공간이다. 3층 이주여성인권센터의 벽에는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이 걸려있었다. 센터의 누군가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여행비를 아껴 그 곳의 물품들을 사온 것이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 강혜숙 대표는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콜로키움과 사업 자문 등의 일로 인터뷰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소탈하고 씩씩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번 인터뷰에서 강혜숙 대표는 20대로부터 시작된 여성운동가로서의 삶을 소개하였다. 긴 시간 다양한 고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강혜숙 대표에게서 여성들을 향한 깊은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낮은 곳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하려는 그의 열정과 노력이 현재 이주여성인권센터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으리라.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였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바

* 대구대, 사회학, biograf@daegu.ac.kr

꾸기 위한 인권센터의 노력이 기발한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때는 함께 박장 대소를 하기도 하였다.¹

저는 이주여성운동가입니다.

이: 저희 연구소에서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활동가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주기적으로 현장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개인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 저는 여성운동가로 불리기를 좋아 하구요, 지금도 이주여성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부터 총여학생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대학의 여학생회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라,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했고 여성문제도 그 때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사회학과 출신이라서 당시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기생관광 반대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이슈들을 먼저 접하게 되었고, 당시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라는 여성운동 관련된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웃음). 그런 책을 읽던 시기에 제가 활동을 하다가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단체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처음에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여성단체는 보통 교육받으러 가면 딱 사람을 ‘당기잖아요’(웃음).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계속 회원활동과 상근활동을 하게 됐죠. 제가 처음 활동하게 된 조직은 <대구 여성의 전화>였어요. 그 때는 중산층 주부들이 교사나 이런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 많았고, 저희처럼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분들 간혹 있었습니다. 당시 어리고 젊은 기운에 ‘봉사’할 일이 아니고, ‘운동’

1 이 글은 이교일 연구원이 수고롭게 작성한 녹취록을 일부 수정, 정리한 것이다.

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해가면서 재밌게 활동을 한 거 같아요. 처음으로 <여성의 전화> 회지를 밤새 작업을 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땐 컴퓨터도 없었죠, 그래서 일일이 워드로 쳐서, 찢어서 붙이고 편집까지 해가지고 회지를 창간하고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주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여성의 전화> 활동을 하다가 여성학과 후배들과 함께 <여성해방연대>라는 거창한 이름의 단체를 만들게 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성해방연대> 사무실도 대구 시내에다가 정했는데, 당시 동아백화점 근처가 공동화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월세가 싸어요. 며칠에 걸쳐서 구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페인트칠하고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 때가 2003년이었어요. <여성해방연대>의 목표는 좀 더 약자들과 함께하는 운동, 기존의 여성단체처럼 대규모의 운동이 아니라 소그룹의, 주제별로 모이는 아주 작은 그런 단체를 지향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처럼 연대활동을 많이 했죠(웃음). 그 당시 대구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나 장애인동지들 문제처럼 시민운동 영역에서도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과 연대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제가 처음 접했죠. 그러다가 다양한 방식의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이 참 많기도 했지만 핵심 사업을 찾지 못하고 조직이 와해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와해되기 전에 다시 <여성의 전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주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서 <여성의 전화>에 들어가서 상근하면서 <이주여성인권위원회>를 회원 중심으로 조직했습니다. 당시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주여성 상담을 위한 상담원교육이나 강좌들을 개최하면서 이주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만 해도 여성단체에서 이주여성문제나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졌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활동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의 전화>를 나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권유해서 <대구여성회>에 들어가 <이주여성인권지원팀>을 만들어 활동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조금씩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고, 당시 대구여성회에서도 이주여성

들의 문제를 핵심 사업으로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주여성인권지원팀〉에서는 공부도 하고,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등을 하면서 직접 이주여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미 대구에서도 남구결혼이민자지원센터와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여성운동의 경험에 비추어 아무리 가정이 행복하더라도 여성들의 희생에 의해서 가정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가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가 많은데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여성인권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이주여성들 당사자를 만나야겠다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선주민[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강사를 양성한다든지, 인권강사를 양성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구, 서구에 전문센터도 있었고, 교회나 복지관 등에서 이주여성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 상담일지와 이동식 책상을 하나씩 들고, 복지관 등에 “한국어 교육시간 전이나 후에 시간을 좀 주면 우리가 상담을 해주겠다”고 직접 섭외를 넣었죠. 그래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교실을 마치고 나오면 이렇게 좌판을 퍼듯이 책상과 상담일지를 퍼놓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주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주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 둘씩 대구여성회에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을 만든다.

강: 대구여성회는 원래부터 선주민[한국 여성]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주여성들 문제까지 다하기는 좀 벅차다는 생각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거쳐서 이주여성 관련 조직을 독립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게 2008년 7월 임시총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8월 달에 사무실을 계약을 하고 나와서 처음에 혼자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주여성들과 그냥 먹고 놀았어요(웃음).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이 와서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책상을 들고 좌판을 하면서 상담 받으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

다녀 보니까 복지관이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같은 단체들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등의 교육만 시키고, 그곳의 상근자들이 이주여성들과 대면하면서 힘든 생활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같이 수다를 떠다거나 하는 활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파게티나 김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고 하면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호칭도 자연스럽게 언니, 동생으로 되어버리고, 이제 뭘 하면 좋을지를 함께 모색해갔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이주여성들이 뭔가 [집/가정] 바깥에서 일하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당장 취직해서 일을 하면 한국어 배우는 것을 중단하게 되고, 한국어를 많이 못 배우면 그만큼 살아가는데 힘들거나 조금 더 열악한 직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혼자 나와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당시에 평일이고 일요일이고 노는 날 없이 일을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주여성들이 여기는 ‘내 집이다, 내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점점 지나가다가도 오게 되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의논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센터가 자리를 빨리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편이구요. 올해 10월이 되면 센터가 만들어진 지 만 5년이 되는데, 처음 몇 년간은 진짜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무척 애를 쓰고, 이 친구들이 어디 동네에서 생일파티 한다고 하면 같

이 쫓아가고, 그렇게 직접 만남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소식이나 이런 것도 이주여성들이 다 준비했어요, 카드 같은 거 하나하나 손으로 수작업해서 만들어서 다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은 지금도 저를 다 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단체가 자리 잡고 나서 온 친구들은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지요.

활동가가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쉼터

이렇게 이주여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상담을 저절로 하게 되었죠. 상담을 하다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만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센터 내의 이주여성전문상담소에서는 한 달에 150건, 많게는 200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보니까 여성들 중에서 집을 나온 경우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쉼터를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쉼터>를 위한 집을 구하는데 대략 세 달 정도 걸렸어요. 다 세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택에 월세를 얻어서 쉼터를 차렸는데, 지금도 그 집을 잇을 수가 없어요.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왔던 내담자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서 거의 자율 공동체처럼 그렇게 쉼터가 형성되었어요. 저희들이 쉼터를 하더라도 상근자가 통제하는 형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성들이 쉼터에 와서 생활하다가 뭔가 불편하면 당연히 상근자들의 활동 방식이나 쉼터의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쉼터에 오는 친구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통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쉼터에는 그런 풍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센터의 상근자들은 힘들고, 내담자 친구들은 자유롭게 지내는 경향이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나중에는 쉼터에 왔던 이주여성들 중에서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하면서 직접 야간상담원으로까지 일을 하기

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문제는 입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웃음). 또 집을 나올 때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과 못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아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생각하거나 할까 봐 신경을 써야하고, 또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못 데리고 나온 자기 아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쉼터를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던 쉼터에는 싱글들만 있게 하고, 새로 오픈한 쉼터에는 <모자 쉼터>라고 해서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머물도록 한 거죠. 쉼터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연계를 하게 되고, 애들 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여성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여성들이 가뜩이나 교육문제나 자녀문제에서 못 헤어 나오는데, 이제 아동문제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쉼터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애초의 쉼터 목적이 쉼터에 있는 기간이 끝나면 여성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예방접종하는 것부터 병원 가는 거, 은행 볼일 보는 거, 사람 상대하는 거,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 모든 일상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주여성들과 애들이 함께 쉼터에서 생활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에게 중요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거죠. 여기 쉼터에 와서 출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칫솔질 하는 것부터 몸 씻는 것까지 어머니인 이주 여성과 함께 의논해서 같이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부정의(不正義)한 일이다.

이: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성 운동가로 소개하신 것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대학 시절에 여학생회 활동이나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강: 글썄요, 제가 자라면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성문제를 알고 생각해 보니까 차별을 좀 받았더라고요(웃음). 예를 들어서 집에 있던 아버지의 서재에 두꺼운 유리창이 있었는데, 오빠 친구가 깨고 왔을 때 저희 아버지의 첫마디는 “네 친구는 무안해하지 않더냐? 혹시 다치지는 않았더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만일 내가 켜거나 내 친구가 켜다면 혼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오빠들이 군대에 갔을 때는 편지를 자상하게 쓰고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었는데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분명히 차별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학생 때부터 알아서 척척 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들로부터 편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제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당시 선생님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학생들을 많이 때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고3 졸업하면서 제 스스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맞지는 않았지만, 다른 애들이 맞는 거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을 하지 못했던 게 가장 낫 뜨거운 일이었어요. 어떤 그런 부정의(不正義)한 게 있을 때 제 마음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유독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실장 이런 것을 많이 했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었고, 선배들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된 셈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것으로 만들어 왔던 거구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제가 스스로 여성운동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건 애 셋을 낳고, 다시 상근자로 복귀하면서였어요. 처음에 회원활동을 하다가, 상근자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회원활동을 하는 등 불규칙하게 이어졌었는데, 애 셋을 다 낳으면서 집에 완전히 들어앉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남편이 굉장히 잘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전업주부로만 살다보면 남편과 점점 사회적, 문화적 격차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근을 하겠느냐는 제의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상근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민 단체에서 상근

첫날, 보통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하는데, 그날 핑크가 나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폭력을 당한 얘기부터 우울증을 겪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잠시 육아휴직을 가졌을 때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갑갑함이나 한계 같은 것을 잠시나마 빠져리게 느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난 앞으로 여성운동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고, 여성단체에 발을 들이고 활동을 한지 십년이 지난 뒤에야 그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후배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을 할 때, 해보고도 자기 것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가봐야 아니까 선불리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때 우리 애가 중3이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삶에 많은 굴곡을 가졌지만 그럴 때 항상 놓지 않고 생각한 것은 '난 여성운동을 할 거야'였고, 여기에다 항상 중심을 두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 삶이 항상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사는 건 많이 힘들고 불편해졌는데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일단은 인식이 굉장히 확장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자유스럽다, 내 삶을 진짜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지요. 저는 이주연대회의에 가면 보통 여성문제를 얘기하게 되고, 여성단체에 가면 이주문제를 얘기하는 위치에 있어요. 말하자면 양쪽 모두로부터 완전 주류라고는 할 수 없는 위치, 중첩된 비주류와 같은 경험 때문에 사물을 보는 감수성이 더 예민해진다고 할까,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저를 상당히 자유스럽게 하고, 한세상 살아가면서 알걸 알고 죽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해요. 제가 여성운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삶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서서히 진행되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여성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지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주 여성들을 만나다.

이: 대표님께서 대구에서 이동 상담을 하면서 이주여성들을 만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주세요.

강: 저는 낯설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 여성운동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젊은 애들이랑 잘 지내냐며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에게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언니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주민을 만날 때도 상대적으로 낯설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고 재밌었어요. <대구여성회>에서 활동할 때도 책상 하나 들고 기꺼이 나가서 상담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을 할 때도 회원가입 활동은 항상 일등이었어요. 그래서 로고 금목걸이, 반지 이런 것도 받았어요. 그냥 상근자 할 때도 회원관리를 잘 했어요. 비오는 날이면 짜짐[부침개] 생각나죠. 회원님? 이런 식으로도 문자를 꼭 날려요. 회계 관리를 할 때도 다 챙겨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한번 만나면 전화나 문자를 꼭 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제 정민이 아프다던데 어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치과를 갔는데 큰돈이 든다, 그러면 제가 아는 치과 뚫어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의료지원센터가 다 뚫린 거거든요. 원장님 여성들 상황이 이리이러한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치과에 가면 돈 덩어리 아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의사들이 기꺼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들을 하면서 선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 돈이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다못해 모르는 병원이라도 가서 뚫어요. 원장님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설득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의료지원 요청서는 그 뒤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상근자가 안 따라가도 이 종이 보내면 좀 치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런 분들에게 연말에 감사문자 날리고, 회원활동이라는 것이 다 그런 활동들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이주민을 만나면 낯설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 생긴 게 다르고 말이 다르고 신기할 것 아니에요. 과거에 장애인 동지들 보면 장애인 이동권 운동하기 전까지는 힐끗힐끗 쳐다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몸이 뒤틀리는 친구들 힐끗힐끗 보진 않지 않나요? 그만큼 많이 접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주여성들도 낯섬을 뚫고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낯섬은 금방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 단체 2층[두밥]에서 이주여성들이 진행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문화체험교실을 하고 있어요. 한해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돈 내고 수업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조용하고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지만 두 번째 올 때, 세 번째, 네 번째는 틀리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마리아 선생님, 마리아 이모 이런 식으로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주민 선생님들보다 더 자주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와 말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면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궁금해 하고 재밌어 하고 다가가면 그 게 친근감으로 바뀌는 거고, 낯설다고 물러나 버리면 그게 결국 배타심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경계에서 우리 센터 같은 곳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국적이냐 피부색 등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 비슷한 남편들이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게 크게 생각되지 않아요.

가부장적인 결혼제도로 인한 문제들

강: 저는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한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여성의 삶 전체를 맡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개명한 현대 사회에서 한 생명을 남편이라는 한 사람에게 다 맡겨둘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이것은 진짜 야만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여성차별문제에 대해서 남편보다 여성과 얘기하는 것을 더 즐겨요. 결국은 약자가 자기 힘을 길러서 빠져나오거나 대항하는 것이 진짜인 것이지 기득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여성들이 자기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센터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하지만,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은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교육을 비롯해서 집단 상담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나, 자기가 처한 현재 가족의 문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선량한 남편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운, 결국 자기 인생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또 고향에서 여성으로 살았을 때 좋았던 점, 나쁜 점, 한국에 와서 여성으로 살면서 좋았던 점, 나쁜 점을 써 보라고 하면 뭐 답은 뻔하죠. 어떤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필리핀 여성은 “한국에 와서 남편이 다 벌어들여 주니까 일 안해서 좋아요.”라고 해요. 저는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이주여성들이 예뻐요. 저는 결혼을 해서든 안해서든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가족주의나 남편존중적인 생각에서 많이 못 벗어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기존 여성단체[중산층 중심의 여성운동]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그들과 하는 것이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결혼이라는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요. 저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고, 만약 이게 개인의 자유를 해친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희 단체의 내담자들이 많은데, 내담자 친구들 중에서 아이를 빼앗기거나 해서 혼자 노동자로 사는 친구들이 성서공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허가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주여성들

이 성폭력의 문제나 출신국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많이 시달리는 상황이
 예요. 이주여성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제도 밖으로 나온 이 친
 구들이 결국에는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성서공단
 근처에 성서지회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 조직 안에서 논의 중에 있고, 이
 것이 무르익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이주여성노동자 운동을 조직해보고 싶
 어요.

이주여성들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는 이주여성인권센터

강: 현재 이주여성인권센터에는 상근자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베
 트남 활동가가 2명입니다. 원래 8명이었는데, 중국인 활동가가 개인사
 정으로 인해 그만뒀서 현재 총원 중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 중 이주여
 성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주여성 당사자 인권 양성교육
 이나, 이주여성이 이주여성을 서로 돕게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이나 상담원 양성교육,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우리 쉼터 내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고 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창립을 하고 이
 주여성들을 만나 상담을 하니 이 사람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 등으로 건
 강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여성의 건강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면
 서 복지관의 복지사들에게 “이런 교육이 있으니깐 함께 해 달라.”라고 전
 화를 하니, 한 복지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회원을 빼앗아 갈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아이고 복지사님.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잘하는 것은 안 합니다. 가뜰이나 다문화정책에서 중첩된 활동을
 한다고 맨날 욕하는데, 중첩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른 단체에서 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서 만일 건강교육을 안했으면 저희 교육에 보내주세요. 회원 빼앗길
 것 염려되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지키
 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

는 곳은 많으니깐 이주여성들에게 집 가까운데서 들으라고 해요. 우리 쉼터 내담자들은 여러 사정상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고요. 또 이주여성들 중에서 잘 정착해서 사는 친구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이 친구들은 다문화인권강사로 지원하여 각 급 학교나 여러 관공서, 성인 그룹 이런 곳에 파견활동을 나갑니다. 그 외에 통번역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교육활동, 파견활동, 그리고 상담과 쉼터 활동은 일상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이지만, 긴급전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2시든, 3시든 저희는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나 이런 곳에 직접 데리러 나갑니다. 그런 활동이 상근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활동기들은 기꺼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힘 안 들어?” 이렇게 물으면, “새벽 2시에 갈 데 없는데 어떡해요?” 이라고 눈 비비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쉼터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요.

후원 회원들의 힘으로 경제적 독립을 꿈꾸다.

강: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원으로 저희들이 쉼터 2개를 4년 동안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쉼터라는 곳은 365일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이불 하나, 세제 하나까지 공급되어야 하는 데 지난 4년 동안 이곳을 유지하면서 진짜 선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푸드뱅크하시는 신부님께서야 채 같은 것들을 공급해주셨고요. 우리가 쉼터하면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의료비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다양한 의료지원 기관들을 뚫으면서[후원을 받으면서] 의료비도 많이 해결이 되었고, 이주여성들의 체류권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이 필수적인데 이 문제도 처음에는 아는 한 두 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하다가 지금은 20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꺼이 저희들 활동에 대해서 돈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이 있었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이런 점이 있었어요. 초기에 창립할 때 이주여성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어 강사 하겠다, 친정부도 맺겠다, 하고 많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 분들한테는 무척 죄송한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시다. 왜냐하면 여기 오는 이주여성들이 거의 20대 초반인데, 당시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다들 50~60대이시고, 또 뭐랄까 이 분들이 다들 가르치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점에서 의도치 않게 이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무척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대학생이나,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20대의 직장인이나 젊은이들 이런 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시도록 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다들 50~60대 시부모들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와서는 가능하면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이 평소에 또래들하고 접촉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런 취지에서 당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 지출인데 처음 상당한 기간은 빌려서 활동비를 썼습니다. 대구지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었어요. 대구지역의 활동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활동비를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했죠.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빚 없이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저하고 쉽터 소장하고 아직까지 활동비가 없어요. 나머지 활동가들에게는 활동비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쉽터 2군데를 4년 동안 자력으로 운영했는데, 올해 정부에서 이주여성 쉽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저희 쉽터 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1등의 점수를 받아서 올해 3월부터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인건비는 그 쪽에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권 센터는 여전히 후원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많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상근 활동가들에게 상당기간 60만 원을 주었고요, 지금은 90만 원 수준입니다. 선주민 활동가들은 60만 원

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이주민 활동가들에게는 먼저 최저임금 선에 맞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 조금 넘게 지급합니다. 선주민들에게는 60만 원을 주고 이주민 활동가들에게는 9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 선주민 활동가들이 센터의 사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대견합니다. 내심 저는 어느 시기에 가면 이주민 활동가들이 ‘차별’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평균으로 나누자고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웃음). 아직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셈이지요.

지금 우리 센터의 후원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완전한 자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후원회원의 대부분이 선주민들이에요. 이주여성들은 극소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주여성들의 후원을 몇 %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주여성들이 회비를 1만 원이나 2만 원 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실물경제를 사니깐, 1만 원, 2만 원이면 구몬 학습지 하나를 시킬 수 있는데, 내지는 오늘 반찬값인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런 실물경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난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약한 집단일수록 뭉치지 않으면 안 되고, 뭉치는 것에 있어서는 돈도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혹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여성재단 사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다.

이: 혹시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강: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이주여성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요. 구술사 형식이어도 되고, 영상이어도 좋아요. 지금 대구에서도 10년차 이주여성들의 삶과 10년 아래로 5, 6년 정도 된 여성들의 삶

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먼저 한국에 온지 10년 이상된 분들부터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처음에 통일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분들이나 중국 교포 자격으로 들어와서 생활했던 분들, 즉 대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1세대들의 역사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대구에서 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남겨지면 후배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후배들이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계신 연구소가 기록 작업 같은 것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문제에 있어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연구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강: 저희가 창립할 때부터 활동의 지향과 목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다르기 때문에 활동내용이 크게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 중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되어서 저희 센터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활동을 경북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 군, 구에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정으로 보아 이 집은 이혼까지 가야할 것 같은데, 같은 지역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그런 것을 지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근자에 따라서 저희 센터에 연계를 해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계도 안 시키고, 그냥 그 사건을 끝까지 쥐고 있기도 합니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관 단체 사이의 협력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기존 쉼터들과 우리 같은 민간단체가 만난 적이 없어요. 대구시에서 아무리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해도 활동가들이 안 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두 소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는 거의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의 접촉을 굉장히 꺼

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마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듯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주여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물은 우리에게 안 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용 인쇄물을 찍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에는 오지 않습니다. 무지개신문이 유일하게 저희 단체에 배달되는데, 무지개신문 기자가 저희 단체의 후원회원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를 취재하러 왔다가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무지개 신문을 계속 보내줘요. 일단은 지역 단체들 사이에 문서상으로도 접촉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시아 여러 나라 언어로 달력이 발간되었는데 그것도 부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하고 있는 제 친구를 통해 제가 받아서 이주여성들에게 줬죠. 정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많은 달력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지만,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는 보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여성 상담소나 민간 쉼터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곳에서는 이주여성 전문상담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필요성도 우리 센터에서 제일 먼저 여성부에 안건을 내고 계속 토론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 보니까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관한 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이주여성들이 너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 조직들과 민간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요.

정부 내에서 부처 간의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여 이주여성인권지원 파트를 따로 분리하여 이주여성전문상담사 교육을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 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법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잡았고 이것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주여성이 가족 내 폭력 등으로 많이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축된 전국의 연대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정폭력에 관한 법 개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선주민 연대 조직과도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저는 가족제도 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가족관계 안팎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제도 안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가 있기는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끼리 만든 협의체입니다. 제가 상근자 채용을 위한 외부 심사자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월급을 주는 상근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젊은 복지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환경의 조직에서 이주여성들과 대면하는 직접 활동보다 행정업무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복지사들이 실제 이주여성의 남편들이 찾아와서 소리를 베키면 무서워서 활동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활동의 내용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등 업무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어려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서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내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이주여성들 한명 한명을 다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각 센터의 실적이기 때문

에 사실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끼리도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서로 연대활동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점들이 갑갑한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것을 함께 내부 건의사항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각 센터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직한 상황을 말하기 힘들고 그래서 각자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이주민들, 다문화가족 내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언론에 공개된 것들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대구·경북지역의 이주여성관련 단체의 상담건수도 많고 센터이용율도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지역 내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나 이로 인한 문화 등의 특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든 안 받는 단체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지역 차원에서 이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앉아서 솔직히 토론하여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행동할 것은 행동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

<부록>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요 현황

주소 및 연락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동 802-1번지 2, 3층 (우편번호)701-820 ○ 전화 : 053-944-2977, 2979 ○ FAX : 053-944-2978 ○ E-mail : iju79@hanmail.net ○ 인터넷 홈페이지 : www.dgwmigrant.org								
설립목적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조직활동을 통한 한국사회의 정착지원,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연혁	○ 2007.07.25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대표 강혜숙) ○ 2008.08.01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상담 시작 ○ 2008.10.2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300호, 주무부처: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과) ○ 2008.10.24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개소식 ○ 2008.12.1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대구이주여성쉼터' 개소 ○ 2009.03.2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대구이주여성쉼터' 설치신고 ○ 2009.03.30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설치신고 ○ 2009.03.31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교육원 설치신고 ○ 2010.06.0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대구이주여성모자쉼터'개소 ○ 2011.08.0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대구이주여성모자쉼터'설치신고								
단체현황	○ 대표자 : 강혜숙 ○ 상근활동가 : 고영숙, 최현진, 히엔, 누엔티눅빛, 제갈은서, 권주현 ○ 회원수 : 195명								
주요사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문화 활동</td> <td> ○ 한국어교육 ○ 컴퓨터교육 및 영상실기교육 ○ 다문화인권강사 교육 ○ 언어강사 및 통번역사 교육 ○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 부부교육 ○ 이주여성전문상담원 교육 ○ 다문화인권캠프 실시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 성폭력상담원 교육 ○ 이주여성쉼터 2개소 운영 ○ 국제결혼이주여성, 여성이주노동자 상담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모임 활동</td> <td> ○ 영상모임 "아자" ○ 연극모임 "각양각색" ○ 다문화인권강사뱅크 ○ 소식지발행모임 "아시아뉴스" ○ 다문화인권교육연구모임 ○ 한국어강사모임 ○ 여성주의상담 연구모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연구 활동</td> <td> ○ 이주여성권익신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 지역민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 및 캠페인 실시 ○ 이주여성관련 정부정책 모니터링 활동 ○ 이주여성 인권실태조사 및 심포지움 개최 ○ 의료지원, 법률지원 </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내용	교육/문화 활동	○ 한국어교육 ○ 컴퓨터교육 및 영상실기교육 ○ 다문화인권강사 교육 ○ 언어강사 및 통번역사 교육 ○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 부부교육 ○ 이주여성전문상담원 교육 ○ 다문화인권캠프 실시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 성폭력상담원 교육 ○ 이주여성쉼터 2개소 운영 ○ 국제결혼이주여성, 여성이주노동자 상담	소모임 활동	○ 영상모임 "아자" ○ 연극모임 "각양각색" ○ 다문화인권강사뱅크 ○ 소식지발행모임 "아시아뉴스" ○ 다문화인권교육연구모임 ○ 한국어강사모임 ○ 여성주의상담 연구모임	정책/연구 활동	○ 이주여성권익신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 지역민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 및 캠페인 실시 ○ 이주여성관련 정부정책 모니터링 활동 ○ 이주여성 인권실태조사 및 심포지움 개최 ○ 의료지원, 법률지원
구 분	세부내용								
교육/문화 활동	○ 한국어교육 ○ 컴퓨터교육 및 영상실기교육 ○ 다문화인권강사 교육 ○ 언어강사 및 통번역사 교육 ○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 부부교육 ○ 이주여성전문상담원 교육 ○ 다문화인권캠프 실시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 성폭력상담원 교육 ○ 이주여성쉼터 2개소 운영 ○ 국제결혼이주여성, 여성이주노동자 상담								
소모임 활동	○ 영상모임 "아자" ○ 연극모임 "각양각색" ○ 다문화인권강사뱅크 ○ 소식지발행모임 "아시아뉴스" ○ 다문화인권교육연구모임 ○ 한국어강사모임 ○ 여성주의상담 연구모임								
정책/연구 활동	○ 이주여성권익신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 지역민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 및 캠페인 실시 ○ 이주여성관련 정부정책 모니터링 활동 ○ 이주여성 인권실태조사 및 심포지움 개최 ○ 의료지원, 법률지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요 사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을 위한 추모제



이주여성 인권전문가 양성과정



다문화가정 문화학교 개교식



지역사회 학교 방문하여 다문화교육 실시 장면



Doobob(두밥) / 다문화체험관, 아시아 마트 전시물품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자문가로 활동하시는 변호사